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numbers 제 118호

주요 내용

2021.11.05

1. 이번 주 주제 :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 인식]
   위드코로나 전환, 국민의 58%가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국민 헌혈 인식] 우리국민, '헌혈 불편해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 76%!
   - [2021 재택근무 실태] 재택 근로자 수, 코로나19 직전(2019년) 대비 무려 12배 증가!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위드코로나 전환, 국민의 58%가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 보여!

이번주 주일부터 교회에도 위드코로나 정책이 실행된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 인원제한이 없는 완전접종자만 예배 참석하더라도 공간적으로 100% 모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예배당이 크고, 주일 몇 차례 예배를 드리는 경우 실제 모든 교인이 참석할 수 있어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이전과 동일 조건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질문하는 것, '이전과 동일하게 교인들이 주일 현장예배에 올까?' 이번 주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 몇 차례 추적 조사한 결과, 약 30% 가량의 교인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현장예배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주 넘버즈 주제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인식'인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은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해 대체로 지지 강도가 약해,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감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개신교인들 역시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과 동일한 불안감이 있기에 선뜻 예전처럼 교회 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주 교회에 예전과 동일하게 교인들이 몰려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번주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18호**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살펴본다. 위드코로나 전환을 맞아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얻게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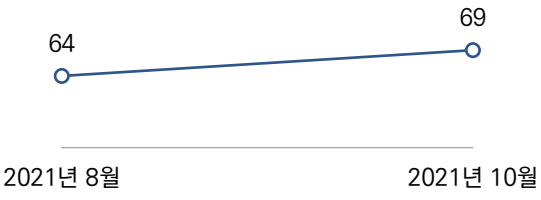
1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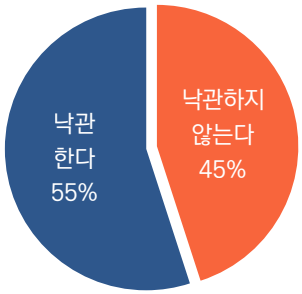
- 우리국민은 완전한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사회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8월 조사때 64%에서 10월은 69%로 증가했다.
- 11월쯤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집단면역 계획 달성에 대해 우리국민은 낙관적 인식이 절반을 약간 상회했는데, 조사 시점이 전 국민의 완전 접종률이 70%나 됨에도 불구하고 ‘낙관하지 않는다’는 비관적 인식이 45%나 돼 주목된다.

[그림] 코로나19 인식, ‘그렇다’ 비율 (%)

설문) 국민 다수가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 돌파력 등으로 완전한 집단면역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림] 11월 정부의 집단면역 계획 달성 낙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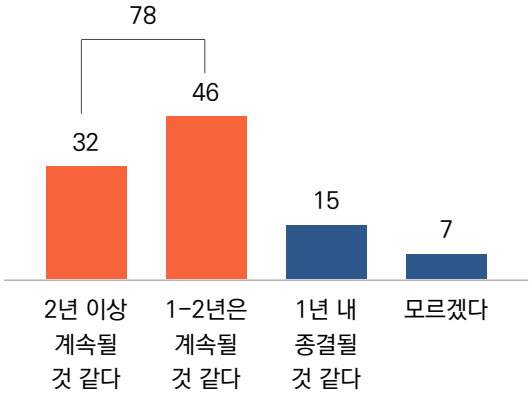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1.10.22.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전국 만19~69세 남녀, 1083명, 온라인조사, 2021.10.05.~08)
*자료 출처 : KBS, ‘코로나19에 대한 일반국민 조사 10월 결과보고서’, 2021.10.31. (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0.22.~25)
*두 개 문항 모두 4점 척도 질문, (매우+어느정도) 그렇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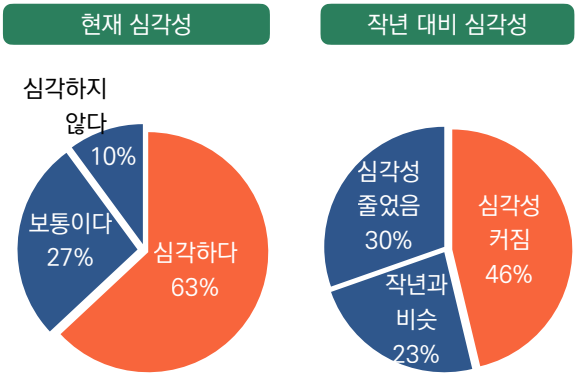
● 우리국민 대부분(78%), 코로나19 앞으로 1년 이상 더 지속될 것!

-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의 대부분(78%)이 앞으로 1년 이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현재 한국사회 코로나19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63%의 국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심각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줄었다는 인식보다 더 높았다.

[그림]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성 예상 (%)



[그림] 코로나19 위험의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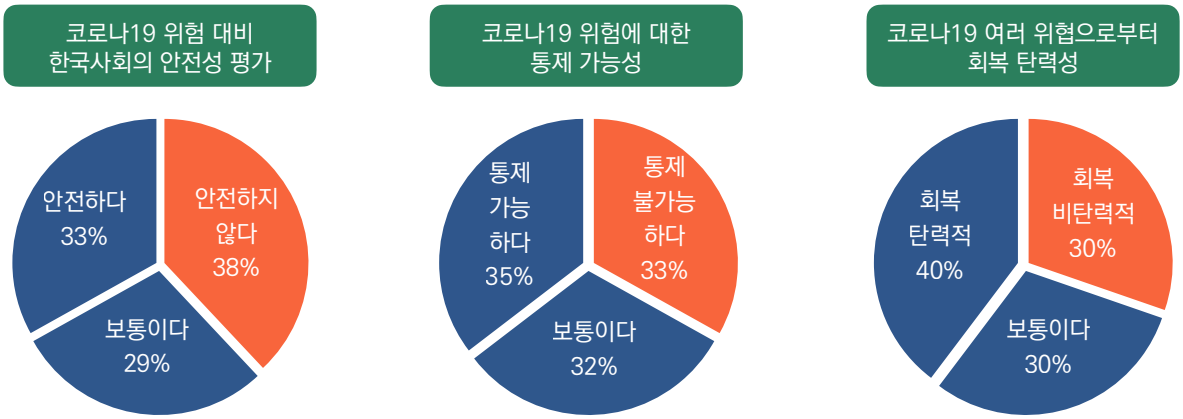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1.10.22.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전국 만19~69세 남녀, 1083명, 온라인조사, 2021.10.05.~08)
**10점 척도 질문(1-4점 심각하지 않다, 5-6점 보통이다, 7-10점 심각하다)

2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 한국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지 질문했는데, '안전하다' 33%, '안전하지 않다' 38%로 두 의견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또 코로나19 위험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35%만이 통제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는 40%만이 회복 탄력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리국민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이겨내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그림] 국내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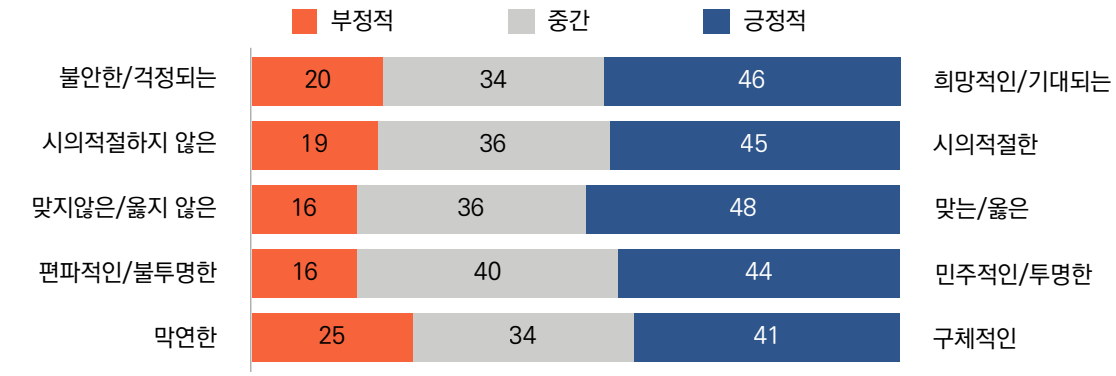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1.10.22.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전국 만19~69세 남녀, 1083명, 온라인조사, 2021.10.05.~08)

3

'위드코로나' 말이나 정보에 대한 느낌, **대체로 긍정적이나 20% 안팎의 국민은 부정적 인식!**

- 위드코로나에 대한 말이나 정보에 대해 몇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느낌을 물어보았다. '희망적인' 46%, '시의적절한' 45% 등 긍정적인 응답이 높지만 전체 항목의 긍정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 반면, '불안한' 20%, '시의적절하지 않은' 19% 등 부정적 인식이 20% 안팎이었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응답자도 30% 중/후반대여서, 위드코로나가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위드코로나 말이나 정보에 대한 느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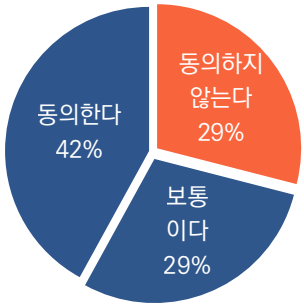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1.10.22.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전국 만19~69세 남녀, 1083명, 온라인조사, 2021.10.05.~08)
** 7점척도 질문으로 '1~3점' 부정적, '4점' 중간, '5~7점' 긍정적으로 분류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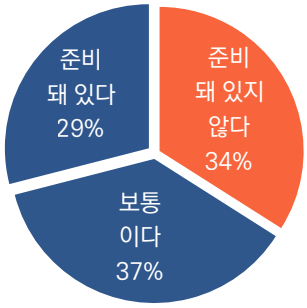
위드코로나 전환, 절반 이상(58%)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정부가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리국민은 ‘동의한다’ 42%, ‘동의하지 않는다’ 29%, ‘보통이다’ 29%로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동의율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우려 속에 현재 개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정부 등의 전반적인 사전 대비/준비 수준이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준비돼 있다’ 29%, ‘준비돼 있지 않다’ 34%로 아직 준비상태가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동의 여부**



[그림] 각 부분에서 위드코로나 사전 대비/준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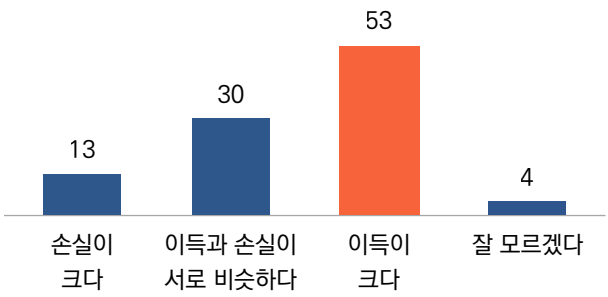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KBS, ‘코로나19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변화 추이 조사 10월 결과보고서’, 2021.10.31. (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0.22.~25)
**5점척도 질문, (매우+약간)동의한다, (전혀+별도)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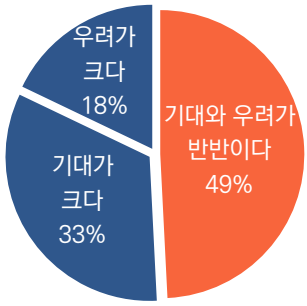
●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우리 사회 이익이 크지만 ‘기대반 우려반’ 49%!

-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우리사회가 얻을 이익과 손실을 질문했는데, ‘이득이 크다’ 53%, ‘손실이 크다’ 13%로 이득이 크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기대반 우려반 인식(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우리 사회가 얻을 손익 (%)



[그림]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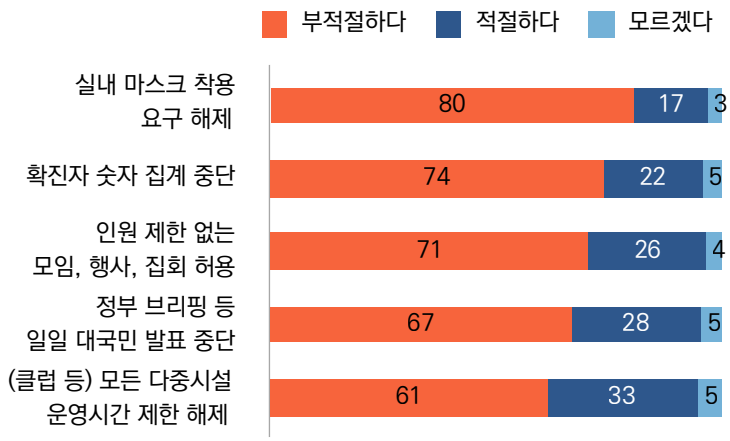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1.10.22.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전국 만19~69세 남녀, 1083명, 온라인조사, 2021.10.05.~08)
** 5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손실/이익이 크다 응답률

5

위드코로나 실시하더라도 ‘인원제한 없는 모임/행사 허용’, ‘다중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조치는 저항감 매우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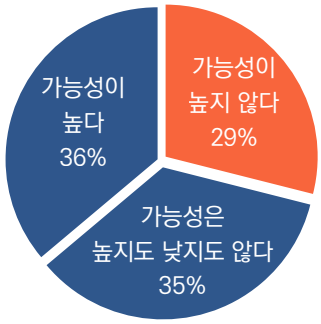
- 다른 나라의 위드코로나 관련 정책 변화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가 적절한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다중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인원 제한없는 모임/행사/집회 허용 등의 항목에서 부적절하다는 부정 인식이 높았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 위드코로나 정책과 관련, 일부 국가에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줄이고 지방자치와 개인의 자율 책임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한국사회에 수용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36%)이 ‘낮다’는 인식(29%)보다 약간 더 높으나, 아직은 국민 인식이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외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의 국내 적용 적절성**



[그림] 위드코로나 방식에 대한 인식

설문) 위드코로나 정책 관련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줄이고 지방자치와 개인의 자율책임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 수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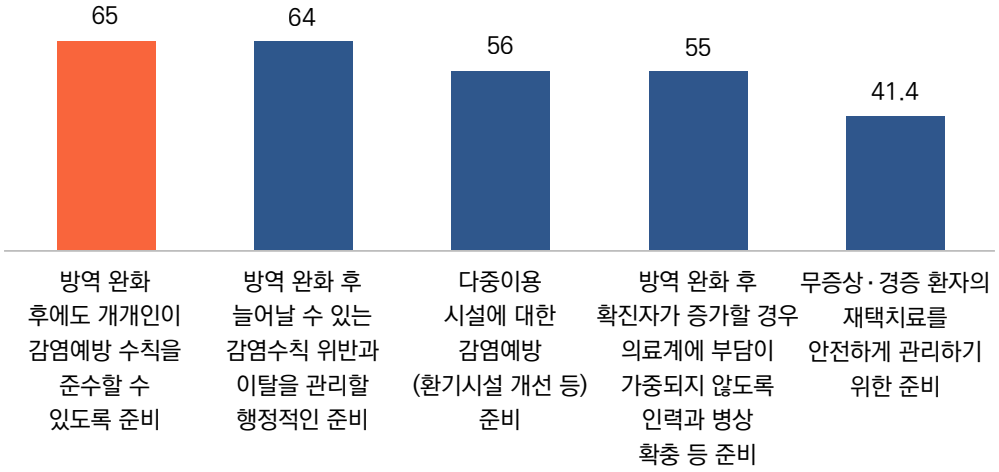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1.10.22.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전국 만19~69세 남녀, 1083명, 온라인조사, 2021.10.05.~08)
** 4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적절하다/부적절하다 응답률
*** 5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가능성 높다/가능성 높지않다 응답률

● 대부분의 국민(85%),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방역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해!

- 위드코로나 시행에 앞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방역 완화 후에도 개개인이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65%로 가장 높게 지적됐다.
- 코로나19 이후 정책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위한 건물환기/환풍시설 강화'(91%), '더 강력한 방역행정, 지침 위반자 처벌 강화'(85%) 등이 매우 높았다. 위드코로나 전환시 '강력한 위반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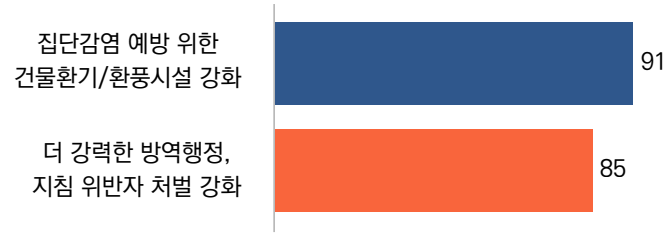
[그림] 위드코로나 시행 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 (1+2+3순위, 상위 5위)*

(%)



[그림] 코로나19 이후 정책 변화 필요성 ('매우+약간' 필요하다 4점 척도)**

(%)



* 자료 출처 : KBS, '코로나19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변화 추이 조사 10월 결과보고서', 2021.10.31
(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0.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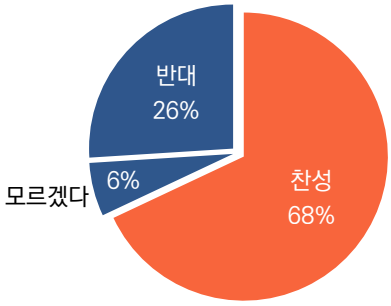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 2021.09.27. (전국 1550명 만 19~69세 남녀, 온라인조사, 2021.08.18.~2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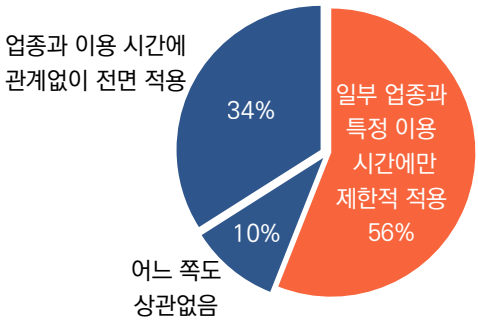
백신패스 도입 찬성하나 일부 업종/특정 시간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 방식 선호!**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백신패스'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찬반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찬성 68%, 반대 26%로 백신패스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찬성자들에게 백신패스 적용범위를 질문했는데, '전면 적용'보다는 '일부 업종과 특정 이용시간에 제한적 적용' 의견이 더 높아, 백신 미접종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림] 백신패스 제도 도입 찬반



[그림] 백신패스 적용 범위(찬성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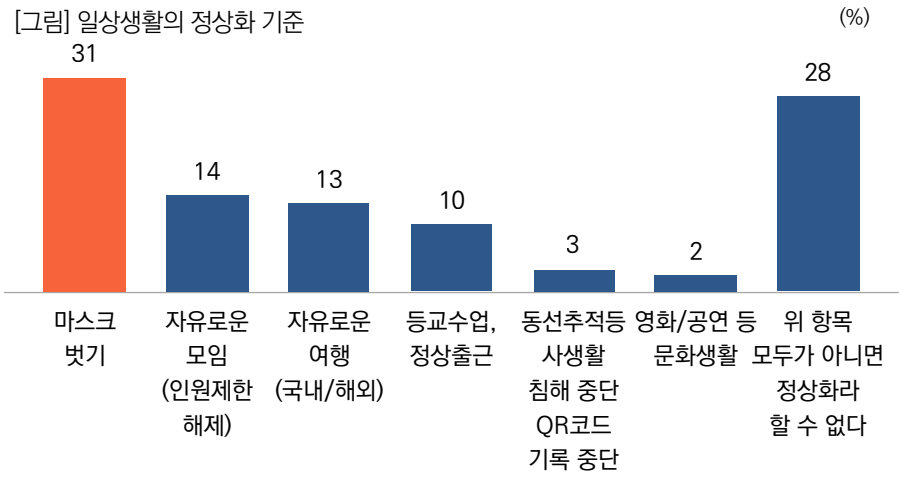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 '코로나19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변화 추이 조사 10월 결과보고서', 2021.10.31.
(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0.22.~25)

7

일상회복의 정상화 기준, **마스크 벗기!**

- 국민들에게 일상회복이 어떤 의미일까를 질문해 보았다. 즉 일상회복의 정상화 기준에 대해 '마스크 벗기'가 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유로운 모임(인원제한 해제)' 14%, '자유로운 여행(국내/해외)'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으면 일상회복이 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 그러나 이 모든 항목에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화라할 수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 되어(28%) 코로나 이전으로의 완벽한 회복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일상생활의 정상화 기준



*자료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 2021.09.27. (전국 1550명 만 19~69세 남녀, 온라인조사, 2021.08.18.~23.)

시사점

드디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교회의 기능이 예배, 교육, 선교, 친교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겨우 예배만 제한적으로 드릴 수 있었을 뿐이었다. 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것은 교회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넘버즈 82호) 더 이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감의 힘겨운 노력이었다. 이제 좌석 수의 최소 50%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활기찬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걱정하는 마음도 크다. 1년 반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적응해서 온라인 예배에 무려 83%가 만족하고 있으며(넘버즈 108호), 목회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교인들의 27%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넘버즈 109호). 온라인 예배에 적응한 교인들이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로 교회로 다시 나올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표지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호를 작성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에 대해 크게 반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물론 찬성하겠지만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아직까지도 국민적인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가 코로나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4쪽),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1-2년 지속될 것 같다' 46%, '2년 이상 계속될 것 같다' 32%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 예상(3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활짝 문을 열어 다시 교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예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출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을 어떻게 교회로 다시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중단한다든지(이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성이 있지만), 전화 심방이나 구역/속회/셀/가정 교회 등 소그룹을 동원하여 교회 현장예배 참석을 독려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모두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한 방법들이다. 특히 우리 연구소가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해 온 바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 선호그룹을 당장 현장예배로 불러오기가 용이치 않다면, 우선적으로 소그룹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과 같이 국민적인 우울감이 높아지고 대중적인 집회 참석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회의 소그룹을 통해 서로 삶을 나누고 위로해 주고 품어주는 역할이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다. 주일현장 예배에는 참석 못하더라도 소그룹은 관계로 인해 참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마도 내년 이후 미래 목회의 방향은 소그룹 활동 여부가 매우 큰 영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우려점이 있다. 우리 국민의 85%가 위드코로나 이후 방역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쪽). 여기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교회가 문을 개방하면서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은 좋은데, 혹 언론을 통해 교회 집단감염 뉴스가 오르내리면, 그때는 사회로부터 한국교회 전체가 또 한번 거센 공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교회 이미지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내 접촉 빈도와 밀도가 높아지더라도 방역 조치, 즉 백신 맞기,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선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인내해 온 것을 계속 견지하고 앞으로 방역을 잘 지켜내는 것이 현재의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에서 한국사회를 위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역할이 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국민 헌혈 인식]
   우리국민, '헌혈은 불편해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 76%
2. [재택근무 실태]
   우리나라 재택 근로자 수, 코로나19 직전(2019년) 대비
   무려 1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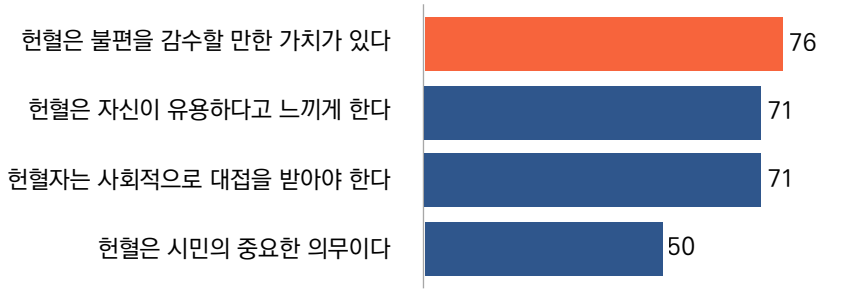
1. 국민 헌혈 인식

작년 말 15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사귐과섬김'에서 당시 헌혈 어려움이 가중되던 때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벌여 4달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헌혈에 동참했던 일이 있었다. 최근 정부에서 '국민 헌혈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교회의 헌혈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우리국민, '헌혈은 불편해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 76%

- 코로나로 인한 감염 위기의식이 높아지며 올 초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정도로 혈액 위기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76%는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응답해, 헌혈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헌혈에 대해 '헌혈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한다' 71%, '헌혈자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71%, '헌혈은 시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50%로 응답해, 헌혈에 대한 국민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헌혈에 대한 국민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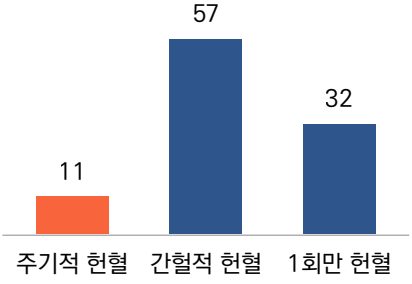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2021.10.26.(전국 만 16-69세 남녀 1000명〈헌혈 경험자 500명, 미경험자 500명〉, 2021.8.3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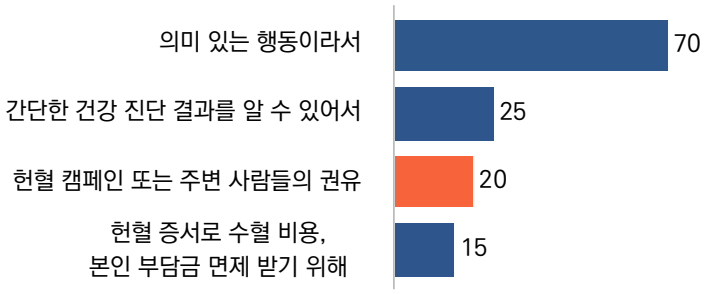
● 헌혈자 중 주기적 헌혈 10명 중 1명 정도(11%)에 그쳐!

- 헌혈 경험자의 헌혈 빈도를 보면, 주기적 헌혈은 10명 중 1명가량(11%)이며, 1회만 헌혈한 비율은 경험자 3명 중 1명가량(32%) 되는 것으로 나타나, 헌혈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식 되지는 않고 있었다.
- 헌혈 동기로는 '헌혈 캠페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20%로 나타났는데, 헌혈자 5명 중 1명 정도가 헌혈 캠페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교회의 헌혈 캠페인 전개가 대사회 공적 역할의 한 예로 검토될 수 있다.

[그림] 헌혈 빈도(헌혈 경험자)



[그림] 헌혈 동기(헌혈 경험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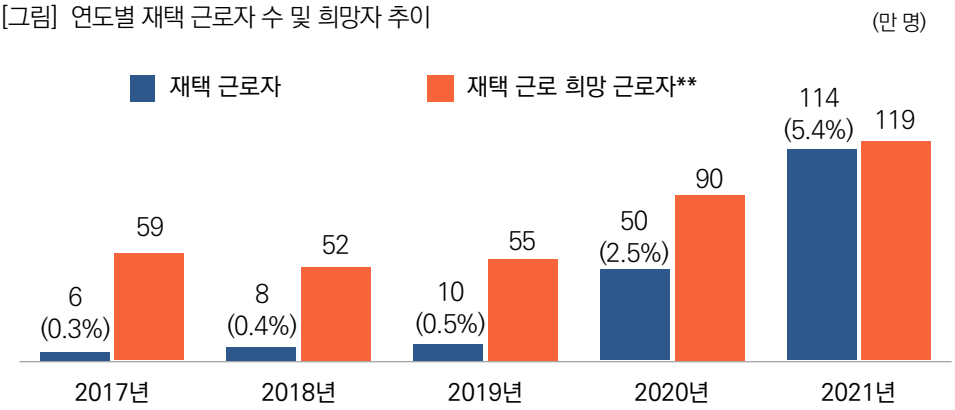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2021.10.26.(전국 만 16-69세 남녀 1000명〈헌혈 경험자 500명, 미경험자 500명〉, 2021.8.31.-9.6)

2021년 우리나라 재택 근로자 수, **코로나19 직전(2019년) 대비 무려 12배 증가!**

- 2021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재택근무자는 114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99만 명 중 5.4%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9만 5,000명(0.5%)에 비해 무려 12배가 증가한 수치이다(매일경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재택 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직장인 중 재택근무 희망자는 2021년 119만 명으로 2020년 90만 명보다 1.3배 증가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새로운 근무 형태인 재택근무는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연도별 재택 근로자 수 및 희망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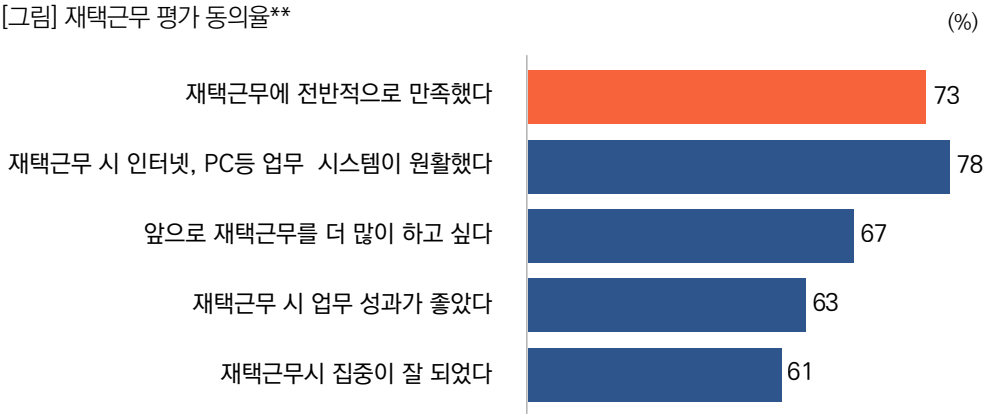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매일경제, 2021.10.26., '재택근무 사상 첫 100만 명 돌파...펜데믹후 2년새 12배 폭증'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4492/)
** ( )안은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재택 근로자 비율임

● 재택근무 10명 중 7명 이상, 재택근무에 대해 '만족한다'!

-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의 73%는 재택근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7%는 '앞으로 재택근무를 더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업무 성과, 효율성, 집중도 등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그림] 재택근무 평가 동의율**



*자료 출처 : 한국 갤럽, '직장인 조사 2021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 2021.3.12. (전국 만 25-54세 직장인 1,204명, 온라인 조사, 2021.3.4.-12)
**4점 척도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71호(2021년 11월 1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내년 대선 결과 기대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52호 (2021년 11월 1주) – 대통령 국정 운영, 차기 정치 지도자 등

사회 일반

삶 포기한 청년 급증은 인재…방지 대책 마련 시급
중앙일보_2021.10.30.

한달에 64차례 접속… 중고마켓 앱 들어가 동네 친구도 사귄다
조선일보_2021.10.30.

전북 TV뉴스에 中·베트남어 자막… 초등학교서 캄보디아어 수업
조선일보_2021.11.01.

"중장년 구직자 70%는 비자발적 퇴직…코로나 불황 여파"
연합뉴스_2021.11.03.

국내 100대 기업 임원 비율 0.76%…"승진 문턱 더 높아져"
연합뉴스_2021.11.03.

가구별 자산증식 속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5배 빠르다
한국일보_2021.11.02.

"위드 코로나 기다렸다"…보복 소비로 백화점 매출 증가
연합뉴스_2021.11.04.

치아에 새겨진 격차, '이' 이를 어쩌나
주간경향_2021.11.08.

교육

대학들의 '벚꽃엔딩?'‥10년 뒤 '3분의 1' 폐교 위기
MBC_2021.10.31.

2류로 추락하는 국내대학… 논문수 톱100에 中·日 49곳, 한국 5곳
조선일보_2021.11.03.

부모 월소득 대비 자녀의 특목고 진학률…700만~1000만원 3.5%, 300만원 이하 1.4%
경향신문_2021.11.02.

'멍청한 XX들' '네 생각은 쓰레기통에'…학생 70% "교사로부터 하대받은 적 있다"
경향신문_2021.11.03.

기후 환경

데이터로 보는 기후재앙…글래스고의 시간이 왔다
한겨레_2021.11.01.

IPCC 저자 60% “지구온도 3도 오를 것” 경고
한겨레_2021.11.02.

“석탄을 역사 속으로!”…전세계 구호 되기엔 아직 먼
한겨레_2021.11.01.

기온 1도만 올라도 '전염병 대란'…김밥 한줄도 맘놓고 못먹을판
매일경제_2021.10.31.

문대통령 "2030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도전적 과제"
연합뉴스_2021.11.02.

경제

“송아지 4만원어치 투자합니다”… MZ세대, 조각투자에 꽂히다
동아일보_2021.11.01.

10월 소비자물가 3.2% 상승…9년9개월 만에 최고(종합)
연합인포맥스_2021.11.02.

10월 수출 24% 증가한 555억달러…역대 2위 규모-10월 기준 최고(종합)
연합뉴스_2021.11.01.

국제

미국, ‘성별 X’ 표기 여권 첫 발급…성별 이분법 깨
한겨레_2021.10.28.

미국인 10명 중 7명 “美 방향 잘못됐다”
조선일보_2021.11.02.

이슈 큐레이션

위드 코로나, 세 가지 관점서 벌어질 일들
주간조선_2021.11.02.

본 글은 지난 10월 25-26일 진행된 「한국교회지도자센터」의 '제14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 뉴노멀시대의 복음 신앙 교회'에서 발표된 현장 목회자의 생생한 글로서, 저자의 허락을 받아 개교회의 목회 적용에 도움되길 기대하면서 소개한다.

넘버즈 칼럼

뉴노멀시대 복음과 전략적 목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뉴 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목회 사역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목회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은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뉴 노멀 시대에는 뉴 미니스트리가 맞는 방식인 것이다.

뉴 미니스트리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포장(프로그램)해서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뉴 미니스트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새들백 교회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Anytime Accessibility'(언제든 참여 가능한), 둘째, 'Real time Delivery'(실시간적 필요 제공), 셋째, 'Anywhere Availability'(어디서든 참여 가능한), 넷째, 'Interactivity'(상호작용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Multiple Choices Customization Personalization'(개인 맞춤 사역)이다. 사회적 필요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필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그 안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는 릭 워렌 목사의 통찰력과 탁월한 방법론이 엿보이는 대안이다.

1. 온라인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 매체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식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진화할 것이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소통이 없이 성도간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소통 방식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비대면 시대를 맞으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시도했던 것은 교회 현장에 모여서 진행되던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을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장비를 마련하고 온라인 송출 기술을 습득하였다. 점차 세상의 문화가 온라인 기반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교육에 관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목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여러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홈 오피스'(Home Office)가 재택근무를 겨냥하여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 가정마다 가격에 맞춰 개인용 작은 오피스를 꾸며주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스템과 큰 모니터를 장착해서 줌(Zoom)이나 구글 미트 등을 통한 화상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 준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이 등장할 것이다.

이미 비대면 예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앞서가는 교회들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교회 내 영상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까지 갖추는 상황이다. 따로 녹화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갖춘 방송실을 통해 양질의 영상 송출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교회마다 전도 방법 역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QR코드를 카톡이나 문자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통해 전도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세상에서 궁금해 하는 여러 내용들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서 다양하게 제공하면, 전도대상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공감이 되면 클릭 한 번 함으로 교회에 등록도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

2. 변화를 위한 몸부림 :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이다. 생각, 즉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세상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다.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면 새로운 발전을 이루게 되지만, 멈춰 서면 다 도태된다는 것이다. 비행기의 발명이나 잠수함의 발명이 가능했던 것은 누군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이고, 많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변화를 시도해 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과거엔 교회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을 앞서 있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회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에 뒤처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교회가 따라 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AI(인공지능), 메타버스, 심지어 우주여행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한다. 전기 자동차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 자동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동차 혁명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엔진과 그 밖의 모든 부속품들이 다 사라지고 배터리 하나만 남게 된다. 이는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를 뜻하는 이야기다. 세상은 이처럼 변화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피해와 아픔을 감수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는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전 세계 명문대학들을 긴장시켰다.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 없는 대학이다. 인터넷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며, 각 나라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맺는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에 세계는 열광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대학마다 명강의를 인터넷으로 올리고 있다. 좋은 강의를 안방에서 들을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이런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된다면 세계의 유수한 명문 대학은 자기 학교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대학들은 살아남기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처럼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리나 신학 논쟁,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교회의 실상을 세상이 보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눈에 한심한 곳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동안 교회는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변화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3. 소그룹 모임 활성화

비대면 시대가 되고 보니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모일 수 없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 그동안 교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공감대나 유대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코로나 블루(우울증) 증상에 빠진 성도들도 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구역모임이나 속회, 셀 모임 등은 한 줄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비대면 시대에 교인들을 결속시키고 안부를 전하며 인사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은 사방으로 막힌 벽 속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다. 소수이지만 함께 울고 웃으며 예배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성도들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이런 소그룹 다이나믹스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

언택트 시대에 중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콘택트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럿이 서로 같은 공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이다. 성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 교회는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자주 모이고 소그룹 참여율이 높은 교회는 주로 리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성도 간의 응집력이 강하며, 교회의 비전과 방향에 있어 공감대가 높기에 위기에도 강하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데 있어 소그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대면 시대에 소그룹 모임은 가능한가? 예전의 방식을 추구한다면 소그룹 모임 역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 새로운 개념의 소그룹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주일 설교 말씀을 한두 가지로 요약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지키게 하다가 주말에 카톡이나 줌으로 열리는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된다. 한 교회에서는 노년층 성도들에게 줌으로 소그룹 모임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그로 인해 노년층임에도 소그룹 모임을 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처음 해보는 방식인지라 다소 어색함도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게 되니 새로운 문명에 눈이 열렸다. 너무 재미있고 좋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이런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 상황을 즐겼다.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의 리더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회원들에게 이쁜 카드에 손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그 카드를 받은 성도들은 평소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감동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집 문고리에 작은 선물과 격려의 편지를 걸어두고 돌아온 리더도 있었다. 이런 소그룹의 기능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돕는데 매우 큰 힘이 되는 일일 뿐 아니라, 소그룹이 작은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사랑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4. 진정성 있는 전략적 전도 운동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있다면 전도다. 전도야말로 사람들 간의 만남이 필요한 영역인데,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교회가 전도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의 전도 방식은 단순히 선포하는 방식의 전도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소통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들의 주제별 짧은 간증이나 성경적 상담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믿으라는 방식에 세상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강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교회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화해서 올려야 한다. 비신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영상을 제작할 때엔 다양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제작해야 한다. 복음의 수용성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전도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톰 S. 라이너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동일한 전도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전도 대상자를 구분할 때, 복음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철저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별한다. 이들의 복음에 대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 U1에서 U5까지로 나누고 있는데, U란 'Unchurched,' 즉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신자를 뜻하는 표시이다. 세분하여 설명하면, U1은 복음에 매우 열려 있는 빌립보의 간수와 같은 사람이며, U2는 복음과 교회에 열린 태도는 보이는 사람, U3은 뚜렷한 수용성을 보이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화에 어느 정도 열려 있기도 한 사람, U4는 복음을 거부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은 사람, 그리고 U5는 복음을 극도로 거부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런 세심한 분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전도 전략을 수립하고, 전도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비신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전도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비신자를 생각할 때에 95%가 교회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조사에 의하면, U1(복음에 매우 우호적)에 속하는 사람은 11%, U2(우호적)는 27%, U3(중립적)는 36%, U4(거부)는 21%, 그리고 U5(적대적)의 경우는 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전도자는 비신자를 전도할 때에 갖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보다 실추된 것이 사실이고,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된 비신자들도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비신자는 모두 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전도 방법론도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왔다. 사영리를 가르쳤고, 길거리와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했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의 구원보다는 교회의 부흥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전도의 본질은 한 영혼의 구원이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진정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 사회는 탈 기독교의 분위기를 넘어 반기독교적 분위기로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이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회는 더욱 진솔한 모습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가정을 결속시키는 사역

현대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 가정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저 소원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와 같은 아픈 관계를 가진 가정이 의외로 많다. 자녀가 부모를 더 이상 보려 하지 않는 가정,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가정도 있다. 자녀의 폭력이 무서워 경찰에 자녀를 신고하는 가정도 있다. 비신자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런 시점에 교회는 가정 회복 사역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교회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매주 15가정 정도를 선발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1박 2일로 캠핑을 진행하는 교회도 있다. 여기서는 훈련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환경을 제공한다. 특별한 순서가 있다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 상영뿐이다. 의미 있는 영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그리고 영화감상 후에는 '모닥불 토크 타임'을 준비하여 서로 대화하게 한다. 성도를 위로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이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성도들은 교회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일산광림교회의 경우(코로나 이전)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을 기획하였다. 박물관도 방문을 하고, 여름에는 자연으로 나가서 하루 쉼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여름에는 갯벌에 나가 조개도 잡았다.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 사역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가정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은 지역사회로 퍼졌다. 비신자의 가정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초청될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를 교회에 맡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유익에 먼저 관심을 갖기보다, 지역 사회와 소외된 계층, 그리고 세상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세상은 그런 교회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고 교회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6.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게 되니 한국 교회는 한 순간 방향을 잃게 되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세상도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심적인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은 교회 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는 중요한 시기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을 전개하는 교회들이 있다. 미국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는 공적 펀드를 교회 안에서 구성하여 나눔 사역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내린 결정이 어려운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나눔 특별헌금 시행이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 전액을 나눔 펀드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헌금이 급감하는 상황 중이었지만, 이런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은 기쁨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모인 헌금은 1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렇게 6차에 걸쳐서 어려운 성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그 외에도 매주 기초 생활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시장 보기, 반찬 나눔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출산하신 분, 환우들, 장애인들,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로 매주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런 사역은 우선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며,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과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역이다.

일산광림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쉼터 사역을 계획하였다.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자립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들이 탈선하고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고, 이런 일에 대한 취지를 교인들과 나누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선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성도들의 모금이 끊이지를 않았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미 있는 사역,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사역을 교인들과 함께 할 때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려움 중에서도 많은 모금액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주다산교회에서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성도들을 역량 있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교회의 특별한 프로그램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수요 예배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수요일 저녁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크리스천 지혜'라는 제목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 흐름을 주목하고, 교회가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살폈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교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시도가 많이 생긴다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7.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프로그램 개발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복음의 용사로 훈련시켜야 하는데, 훈련 장소에 훈련 받아야 할 다음세대들이 없다.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훈련 받아야 할 훈련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재미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스마트 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교회의 프로그램은 따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앞가림을 잘하며,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회의 프로그램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교인들의 자녀들뿐이다. 그나마도 대학생이 되면 이들도 교회를 떠난다. 교회는 필사적으로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일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다르듯이,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다르듯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다르다. 그럼에도 기존의 교회는 다음세대에게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성세대의 예배와 교육을 따라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도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막2:22)"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새 포도주를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이다. 현재 교회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으려 애쓰다가 가죽 부대가 터지니 새 포도주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필립 클래이튼 박사는 과거에는 노인들이 떠난 자리를 젊은이들이 채워주었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진정 다음 세대의 교회는 이전의 교회로 되돌아 갈 수 없으며,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말하였다. 현재 서구 교회나 한국 교회에 있어서 미자립 교회가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더욱 급속도로 교회는 쇠락해 갈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 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세상적인 컴퓨터 게임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세상적인 오락 외에도 얼마든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는 많이 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감동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교회의 목표는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는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풍랑이 부는 세상 속에서 버텨낼 힘을 갖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뉴 노멀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뉴 노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목적이요, 기독교 지도자를 세상에 배출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산광림교회에서 실시하였던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⑴ 빈자리에 이름 붙이고 예배드리기

코로나 초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는 아이들이 앉던 의자에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표를 부착했다. 그리고 짧은 설교 말씀과 함께 모든 자리 앞에 잠시 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다. 여기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크게 감동하였고, 누구보다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었다.

⑵ 식물 키우기

두 번째 주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화분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여기에 씨앗을 심었고, 매주 화분의 변화를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자기 이름이 적힌 화분에서 싹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환호했다. 마치 자기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기뻐하며 매일 자기 화분의 상태를 묻는 아이도 생겼다. 아이들은 다음 주를 기다렸다. 자기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대면 예배가 속회 회복되길 기대했고 기도했다.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은 100% 출석을 하였다. 그날 자기 이름이 적힌 화분 속에 잘 자란 식물을 보며 흡족해 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⑶ 유튜브 건강 예배

매주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중고등부 담당 목사와 전도사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일산의 유명한 곳을 다니면서 재미있게 운동을 하는 영상을 찍었다. 팔굽혀 펴기와 철봉 등 다양한 헬스(PT) 훈련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다. 이 운동하는 장면을 10분 정도로 편집을 하고, 그 뒤에 5분 정도 메시지를 전한다. '그게 예배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일산광림교회 중고등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육체와 영혼이 다 건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리는 영상 예배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목사와 전도사가 영상으로 재미있게 운동하는 모습도 아이들이 보고 싶은 장면이거니와, 이런 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더욱 교회를 사모하고, 친구들 간에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쌓아가고 있다.

⑷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청년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소수의 인원이 교회 카페에서 하우스 워십 형태로 예배를 진행하였고, 그것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하였다. 조별 모임은 인터넷 안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참여를 하였다. 청년들 80% 이상이 수련회에 참여를 하였다. 확실히 새로운 방식에 적응을 잘 하는 청년들인지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는 메타 버스 안에서의 수련회도 고려중이다. 청년 담당 목사는 메타 버스 안에 일산광림교회를 개척 준비 중이다. 지난여름, 모 선교 단체에서는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점차 확산될 것이다. 이에 교회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일산광림교회에서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그리고 동시에 감동적이고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접근해왔다. 이런 시도는 바로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활기를 띠었고 그 결과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지역 주민들도 교회의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여 주며 교회를 응원해주었다. 사역 제목만 소개를 하자면 아이들 진학상담 프로그램, 토요 삼겹살 캠프, 3분 심방, 간지배달, 미래 직업교육과 견학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 문화탐방 등을 진행하였다. 이런 사역들을 전개한 결과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8. 맺는 말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세상이다. 교회는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옛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을 순 없다. 그런 자세라면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통을 고수하며 과거의 옛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조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과거의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변화와 변혁의 시기에 교회는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과거에 늘 걸어 다녔던 시절 자전거가 발명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활용하여 먼 거리를 쉽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엔 걸어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결국엔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 목회를 위해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길을 모색해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횃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롱,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종,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헌,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이조형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연구소 소식

저희 연구소가 함께 참여한 월드비전 감사 웨비나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감사인식조사 발표 및 대안모색)

일시 : 2021. 11. 11.(목)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주최 : 월드비전, 국민일보
주관 : 월드비전, 목회데이터연구소, 아름다운동행 감사학교
장소 : 월드비전 YouTube 진행 (신청자 별도 링크 발송)

온라인 초대장 : 여기를 눌러 주세요.　　사전신청 : 여기를 눌러 주세요.